



뉴스 송신탑

'인삼 할아버지' 군민의장 수상



전북 진안군의 특산품인 인삼의 민간 홍보사절로 국내외 사진모델 활동을 해온 고(故) 이형우 할아버지가 군민의 장 공익장을 수상했다.

진안군은 12일 고인이 진안 인삼의 홍보사진을 통해 이 고장 인삼의 세계화와 농민의 소득증대 등에 앞장 선 공을 인정해 상을 수여했으며 이날 시상식에는 지난 7월 82세로 타계한 할아버지 대신 아들인 이

상준 농협 전북본부장이 참석했다. 이 할아버지가 인삼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 88년.

임실 대리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40여 년 간의 교직생활을 마감한 할아버지는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이를 눈여겨본 진안군청의 한 직원이 인삼의 홍보잡지에 모델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면서 부터다.

전통 한복에 긴 수염을 가진 이 할아버지가 양 손에 인삼을 들고 함박웃음을 짓는 모습을 담은 이 사진은 그 해 전북도가 주최한 관광사진 전국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했고 이후 진안 인삼을 알리는 대명사로 통했다.

친근감이 물씬 풍겨 나는 이 사진은 또 전국의 홍보관이나 인천 국제공항, 백화점은 물론 도내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버스 승강장

등에 내걸렸고 2001 전주약령시 제전 홍보책자의 표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진안군은 "할아버지가 얼마전 생을 마감돼 안타깝지만 생전의 정겨운 모습으로 진안 인삼을 널리 알린 것을 기리기 위해 상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산 인삼약초시장에 체험형 프로그램

다음달부터 충남 금산의 명물인 인삼약초시장의 5일장(2일, 7일장)에 오면 전통복장을 한 보부상이 지게에 고객의 짐을 나르는 이색적인 광경을 목격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몸소 약초썰기를 체험해볼 수 있게 된다.

금산군은 11일 "인삼약초시장을

전국적인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장날에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복장을 한 보부상의 고객집 나르기 ▲약초썰기 및 황기뭉기, 향주머니 만들기 체험 ▲말하는 삼동이 및 삼신령의 거리 퍼포먼스 등으로 짜여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에 열린 '제25회 금산인삼축제' 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활력과 정감넘치는 시골장터를 재현할 수 있어 인삼약초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개성인삼 '원년' 선포한다

"무공해 청정지역 민통선에서 6년동안 잘 자란 파주 개성인삼 싸게 사러 오세요"

제1회 파주 개성인삼축제가 15~16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 선보이는 인삼은 축제 직전인 13~14일 민통선 장단면 일대와 감악산 기슭에서 캐으며, 모두 7t 가량으로 1등급을 중심으로 등급에 따라 채(750g) 당 3만5천~6만8천원에 판매된다.

이는 시중 소매가보다 30% 가량

싼 가격이다.

장단인삼으로도 불리는 파주 개성인삼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일교차가 큰 기후 조건에다, 비옥한 모래 참흙에서 친환경 미생물제재를 먹으며 성장해 머리가 크고 조직이 치밀하며 잔뿌리가 많고 향도 진해 최고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장단인삼은 생산량의 90% 이상이 한국인삼공사와 인삼조합에 수매돼명품 고려홍삼으로 가공 판매되며, 이번 축제에서는 발에서 바로 뽑아 손질되지 않은 수삼 형태로 선보인다.

축제에는 또 6년근 파주 개성인삼, 파주 개성인삼 약용작물, 가공제품, 인삼개발요리 등 9개 홍보관이 설치되고 꿀과 돼지고기 등 인삼과 잘맞는 궁합식품이 선보이는 웰빙식품관, 약초재래장터, 장뇌.산삼 홍보관매장 등이 운영된다.

또 인삼 개발요리 시식, 파주 개성홍삼 제조 전시, 연예인과 함께 인삼캐기, 인삼주 담그기, 수매과정 시연, 민속놀이, 한방무료진료, 건강상담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놀거리 및 먹거리 마당, 공연이 준비돼 있다.

특히 파주시는 2005년을 파주 개성인삼 원년의 해로 정하고 축제 마지막날 '파주 개성인삼' 원년 선포식을 갖는다.

시(市) 관계자는 "조선시대와 구한말 발간된 구포건삼도록(九包乾蓼都錄)과 한국삼정요람(韓國蓼政要

覽)에는 파주 장단 일대가 개성인삼의 본원지라는 기록이 있다"며 "이번 축제는 개성인삼의 옛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에는 민통선과 적성면 감악산 등지 100만평에서 인삼이 재배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6년근 176t이 생산돼 169t에 대한 수매가 진행되고 있다.

증평 인삼축제 14일 개막

'제14회 증평문화제 및 인삼축제가 14일부터 3일간 보강천 체육공원 등 군 일원에서 열린다.

풍년놀이로 막을 여는 이번 축제에는 메뚜기잡기와 추수하기, 전통떡 만들기 등 체험행사를 비롯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굿과 주민화합 민속놀이, 씨름대회 등 참가자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축제 기간인 15일에는 군이 특산품인 인삼의 유통.판매를 위해 증평읍 송산리에 건립한 '인삼바이오센터'가 개관돼 선을 보이며 대한양돈협회 증평지부도 같은 날 '삼겹살 축제'를 열어 시식회 및 예쁜 새끼돼지 전시회를 마련한다.

또 열기구와 행글라이더 타기, 모형항공기대회 등 항공체험행사와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최홍만, 산삼 먹고 본야스키와 결전 준비

테크노골리아' 최홍만이 '산삼 보약을 먹고 11월 19일 K-1 월드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레미 본야스키(네덜란드)와의 일전을 준비한다.

최홍만은 9일 저녁 평소 절친한 관계인 현대 유니콘스 투수 정민태(35)의 소개로 서울 잠실의 '선 한의원'에서 진맥을 받고 산삼과 녹용이 들어간 한약을 한 달동안 복용하면서 본야스키전을 준비하기로 했다.

'선 한의원'의 오종철 원장은 "진맥을 한 결과 큰 이상은 없으나 땀을 많이 흘리는 것으로 나왔다. 체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운동을 과다하게 하거나 기(氣)가 허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오 원장은 "기가 허할 때는 보통 인삼과 황기를 넣은 약재를 사용하나 최홍만이 K-1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인 만큼 산삼과 녹용 등 귀한 약재를 쓴 특별 보약을 한 달치 정도 지어줬다"고 밝혔다.

특히 "운동 선수로서 근육 발달이 필수적으로 근육쪽과 관계가 깊은 간 기능이 좋아지는 약을 조제했다"고 덧붙였다.

최홍만은 앞으로도 한방 의학을 통해 체질을 건강하게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깨 관절순 부분 파열로 지난달 20일 미국 앨라배마주 스포츠

클리닉에서 앤드루 박스의 집도로 어깨 수술을 한 정민태는 현재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1주일에 한 차례씩 '선 한의원'을 방문, 침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오 원장은 "정민태의 경우 아직 공을 만져서는 안 되는 단계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급선무"라고 전했다.

대전기상청, 금산인삼용' 정보 제공

대전지방기상청은 7일부터 충남 금산군농업기술센터에 인삼재배용 작물기상정보 제공을 시작했다.

대전기상청이 제공하는 실시간 기상변화와 인삼재배 공정별 일기예보, 재해기상정보 등은 금산농업기술센터의 '금산인삼 GAP시스템'에 입력돼 인삼재배 농민들에게 일기예보 형태로 제공된다.

인삼은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30도가 넘으면 성장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어 기상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면 인삼의 품질을 높이고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특화사업으로 처음 시작했다"며 "민간예보사업체인 (주)침성대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호응이 좋으면 유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산군, 금산인삼약령시장 상징물 선정

충남 금산군은 최근 금산인삼약령시장의 상징물 공모에 참여한 33점을 대상으로 심사, A지구(제원면 수당리)와 B지구(금천대교 주변), C지구(금삼교 주변) 등 3개 지역에 설치될 상징물(3점)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지구에 설치될 상징물은 인삼의 특징을 단순화해 금산지역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했으며 B지구 상징물은 '투조'라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 금산인삼약령시장의 특징을 형상화했다.

또 C지구에 설치될 상징물은 미래 지향적인 물의 흐름과 청정자연, 금산인삼의 결실을 형상화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내년 6월까지 1억1천만원을 들여 이번에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을 실물로 제작, 해당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들 상징물은 국내 인삼약초산업의 중심지인 금산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2006 금산세계 인삼엑스포(9월22-10월15일)'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풍기인삼축제 관광열차 운행

2005 풍기인삼축제' 관광열차가

1일부터 나흘간 운행에 들어갔다.

영주시와 한국철도공사, 여행사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관광열차는 축제 기간(1~5일) 중 4일간 서울과 동해안 지역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루 1회 운행한다.

관광열차는 1일~3일 오전 9시 서울 청량리역을 출발, 12시11분 풍기역에 도착해부석사 관광, 인삼캐기 체험, 축제장 관람 등이 끝나는 오후 6시에 풍기역을 출발해 서울로 돌아온다.

4일에는 열차가 오전 8시30분 강원 동해시 묵호역에서 출발, 12시 20분께 풍기역에 도착한 뒤 축제장 자유관람 후 오후 5시 풍기역을 출발, 동해로 돌아온다.

영주시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인삼축제와 함께 기차여행의 낭만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삼에 백내장 예방 물질" 서울대 안과 이진학 교수팀 "사포닌 성분 안약 개발 중"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을 이용해 백내장을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안과 이진학 교수팀(안과 정문선 임상강사, 약대 박정일 교수, 천연물과학연구소 한용남 교수)은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 결과,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백내장 발생을 5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최근 미국서 개최된 백내장굴절학회와 대한안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됐다.

백내장은 우리 눈 속의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투명한 수정체에 혼탁이 온 상태를 말하는데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을 나타낸다. 노화에 따른 노인성 백내장이 가장 일반적이며 50세가 넘으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조금씩 증상이 나타난다.

일단 백내장이 발생하면 수술로 백내장이 발생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함으로써 대부분 시력을 회복할 수 있지만 안약 등을 사용해 비수술적 방법으로 백내장을 치료하는 기술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인삼은 예로부터 눈을 밝게 하는 약품으로 알려져 사용돼 왔지만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은 없었다.

연구팀은 쥐 100마리(실험군 50마리, 대조군 50마리)에 백내장 유발물질(Sodium Selenite)을 주입한 뒤 실험군에는 인삼추출물을 투여하고 대조군에는 생리식염수를 넣었다.

실험 2주 후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쥐들은 평균 21.5%에서 백내장이 발생한 반면 인삼추출물을 주입한 군에서는 9.4%에서만 백내장이 발생함으로써 사포닌 성분이 백내장 발생을 절반 이상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진학 교수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인삼 성분을 이용해 백내장 안

약을 만들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진청 '생명농업 엑스포' 개최

농촌진흥청은 27일부터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라는 주제로 2005 생명농업 엑스포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엑스포에는 우리 농업을 알리는 쌀 홍보관, 웰빙관, 생활문화관, 사이버농업관 등이 운영된다.

쌀 홍보관에서는 우리 쌀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습과 함께 다양한 쌀 가공품과 아이디어 상품을 시식할 수 있으며 농진청이 추진하고 있는 쌀 혁명 프로젝트도 소개된다.

사과와 배, 버섯, 인삼 등의 전신과 시식이 이뤄질 웰빙관에서는 현대인의 건강과 우리 농산물의 관계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생활문화관에서는 도시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실내정원에 관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

사이버농업관에서는 국산 농산물의 재배에서 생산까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이력제 시스템과 도시 어린이가 인터넷을 통해 농업 및 농촌을 체험하는 사이버 농장 체험 시스템 등이 운영된다.

이번 엑스포는 입장료가 없으며 엑스포 기간에 전국 350명 4-H 회원의 기량을 겨루는 '제41회 4-H중앙경진대회'도 열린다.